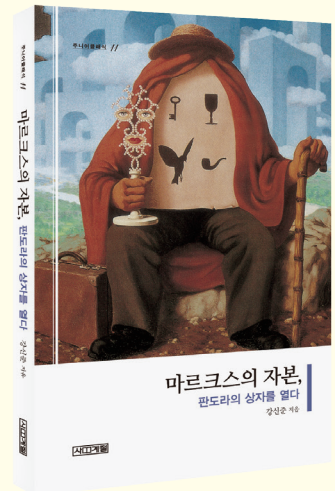

마르크스의 자본, 판도라의 상자를 열다

작성 오세호(안산강서고등학교), 성지현(안산교육지원청), 이성균(신천고등학교), 윤이정(안양예술고등학교)

※ 이 지도안은 사계절출판사 홈페이지(www.sakyejul.net) > 한 학기 한 권 읽기 > 독서 지도안(중고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마르크스의 자본, 판도라의 상자를 열다
강신준 지음



-
- 주 제 어 #생산, #소비, #교환, #자본가, #노동자, #부, #임금, #축적, #자본주의, #대안적 경제 구조, #민주주의, #사회적 합의
 - 분 류 사회 과학
 - 선정내역 ★2012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교양도서 ★2013 전국독서새물결모임 제12회 독서토론논술대회 도서
★2013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제14회 전국청소년논술토론탐망마당 도서
-

도서 소개

'카를 마르크스'라는 이름을 주로 어떤 이미지로 기억하고 있나요? 짐작하건대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기억하는 청소년이 많을 겁니다. 특히 이념의 차이로 분단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그렇지요. 1867년에 출판된 그의 대표 저서 『자본』은 오랫동안 금서였고 1987년에서야 겨우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어찌면 여전히 이 책을 읽기가 선뜻 내키지 않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고전이라면 한 번쯤 시도해 볼 수 있겠죠. 물론 『자본』은 방대한 양과 까다로운 내용으로 청소년이 쉽게 접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자본』을 한 권에 쉽고 명료하게 정리한 『마르크스의 자본, 판도라의 상자를 열다』는 청소년에게 의미 있는 책입니다. 특히 다음 질문들에 궁금증을 가져 본 사람이라면 이 책을 읽어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왜 일을 많이 하는데 계속 가난할까? 자본주의는 어떻게 탄생했는가? 그 특성은 무엇인가? 우리가 사용하는 상품에는 어떤 '가치'가 들어 있는가?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왜 임금 협상을 해야 하는가? 생산과 소비와 교환은 어떤 관계인가? 우리는 받는 돈만큼 적절하게 일하고 있는가? 도구와 기술의 발달은 인간을 노동에서 해방시킬까? 산업 현장의 기계화는 노동자의 임금에 어떤 영향을 줄까?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노동자는 자본을 가질 수 있는가? 경제학은 정말 돈 버는 방법을 제시하는 학문일까? 자본주의 사회는 언제까지 영원할까? 사회 운동을 하는 단체는 왜 존재해야 하는가?

이 책을 읽는다면 이와 같이 많은 의문에 대한 답이나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 실망스러운 답을 찾더라도 절망하지는 마시고 새로운 희망의 열쇠를 찾아보세요.

학습 목표

1. 경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이해하고, 작은 실천 방법을 찾을 수 있다.
2. 사회적 합의의 의미를 이해하고, 사회적 생산과 소비를 위한 실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독서 계획

단계	활동 내용	총 10차시
독서 전	생각열기	1차시
독서 중	1~4장 내용 정리하기	2차시
	5~8장 내용 정리하기	3차시
	9~11장 내용 정리하기	4차시
	12~15장 내용 정리하기	5차시
독서 후	유형별 질문 만들기	6차시
	소크라틱세미나로 내용 분석하고 토론하기	7~8차시
	요약하는 글쓰기	9차시
	신문 칼럼 작성하기	10차시

● 다음 두 개의 영상을 보고 활동을 해 봅시다.

1. 지식채널e '피케티가 마르크스에게' (<https://url.kr/dabmgy>) ※ 로그인 후 전체 영상 시청 가능



- 이 영상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구절은 무엇인가요?
- 마르크스는 왜 자본주의가 몰락할 것이라고 예언했을까요?
- 토마 피케티는 왜 자본주의가 몰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2. 지식채널e '그의 메시지' (<https://url.kr/9z3stl>) ※ 로그인 후 전체 영상 시청 가능



-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붕괴를 예언했지만 그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경제학자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 1~4장(20~61쪽)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 마르크스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 두 가지의 질문을 품었고, 이 질문들이 『자본』이라는 책을 탄생하게 만듭니다. 그 역사적 사건과 질문은 무엇일까요?

역사적 사건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2. '노동 빈곤'이란 무슨 뜻일까요? 우리 주변에서 사례를 찾아봅시다.

의미	
사례	

3. '자급자족 경제'의 특징을 파악해 봅시다.

의미	
경제적으로 가난한 이유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이유	

7. '가격'의 결정 과정에 대해 알아보시다.

과정	1단계	생산자가 ()
	2단계	구매자가 ()
결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교환가치는 곧 □□□이다. 하지만 생산자가 _____ 아니다. 소비자가 _____ 이다.	

8.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노동'의 이중적 성질을 지적합니다. 그 성질은 무엇일까요?

노동자 측면	
생산자 측면	

● 5~8장(62~115쪽)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 자본주의 경제 구조에서 노동자는 가난해지고, 자본가는 부유해지는 이유에 대해 알아봅시다.

등가 교환이란?	
생산	생산이란 생산요소인 (), (), ()이 소비되면서 다른 새로운 ()을 만드는 과정이다. 생산요소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가치가 변하면 () 가치와 () 가치가 달라진다. 즉 가치를 변동시키는 것은 생산요소이고, 그중에서도 ()이다.
노동력의 교환	노동력의 교환에는 노동자와 자본가라는 두 주체가 있다. 노동자는 노동력을 ()하고, 자본가는 노동력을 ()한다. 노동자는 본인이 받은 것보다 더 () 가치를 자본가에게 제공한다. 자본가는 노동자를 ()하거나 ()를 제공하는 등 노동자가 가치를 만드는 것에 도움을 주는 일을 통해 노동자에게 지불한 것보다 더 () 가치를 차지한다. 이런 교환이 반복되면서 노동자와 자본가의 격차는 더욱 (). 즉 이들 사이에서 교환의 법칙인 ()은 위반되고 있는 것이다.

2. '부(富)'의 창출과 처분에 대해 알아봅시다.

부를 창출하는 생산요소	① ②
부의 처분	자본: 자본가: 노동자는 ()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부를 창출할 수 없다. 따라서 부의 처분 권은 ()가 갖게 되고, 노동자는 ()를 보는 교환을 할 수밖에 없다.

3. '노동시간'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알아보시다.

<p>부를 창출하는 생산요소</p>	<p>① 13세기 영국 농민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 ② 2007년 기준 현대자동차 노동자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 ③ 2008년 기준 OECD 국가 연간 평균 노동시간: ④ 2009년 기준 대한민국 연간 평균 노동시간: 문명의 역사는 □□□□을 줄여 가는 과정이다. 야만의 시대에 가장 가까운 순서대로 ①~④를 나열하면 ○, ○, ○, ○이다.</p>
<p>부의 처분</p>	<p>Q1: 부를 결정하는 것은? A1: Q2: 노동시간을 결정하는 주체는? A2: Q3: 자본가가 자신의 부를 늘리는 방법은? A3:</p>

4. '도구'와 '노동시간'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시다.

<p>생계비란?</p>	
<p>도구와 노동시간</p>	<p>Q1: 도구의 발달로 줄어들 수 있는 시간은 무엇인가요? A1: Q2: 도구의 발달로 늘어날 수 있는 시간은 무엇인가요? A2: Q3: 실제로 도구가 발달할수록 줄어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A3: Q4: 실제로 도구가 발달할수록 줄어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A4: Q5: 실제로 도구의 발달과 노동시간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A5:</p>

● 9~1장(116~158쪽)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 자본주의에서 '부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인가요? 라다크 사람들을 예로 들어 설명해 봅시다.

자본주의에서 '부자'의 의미	
1975년의 라다크 사례	
1993년의 라다크 사례	

2. '가난'과 '부'가 대물림되는 과정을 알아봅시다.

노동자와 자본가는 누가 정하는가?	자본주의 초기에 노동자와 자본가는 □□□□□□ 만들어진다.
'가난'과 '부'가 대물림 되기 위해 어떤 장치가 필요한가?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가들이 자본을 대물림하기 위해 인위적인 장치를 만들었다. 첫 번째 장치: 노동자가 □□을 모으지 못하도록 □□을 생계비에 근접할 정도 만 지불한다. 두 번째 장치: 자본가는 □□의 일부를 다시 투자하여 더 많은 □□ 을 만드는 구조를 설계한다. 그래서 □□는 부르주아의 덕목이다.

3. 경영학은 영어로 Management라고 합니다. 그 어원과 유래를 밝히고 경영학 기술자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파악해 봅시다.

Management의 어원과 유래	
경영학 기술자가 하는 일	경영학 기술자는 ① ② 를 통해 노동시간을 관리한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노동시간 가운데 일부를 자본가 에게 빼앗긴다는 사실을 쉽게 잊게 만든다. 노동자는 자신의 총 노동시간을 모두 임금으로 돌려받는 것처럼 착각한다.

4. 주류 경제학이 거짓말인 이유를 분석해 봅시다.

주류 경제학의 거짓말	임금은 노동의 한계 생산가치와 일치한다.
이유	실제 임금은 노동 ()에 결정되지 않고 노동 ()에 이미 결정되어 있으므로 주류 경제학이 말하는 임금에 대한 설명은 거짓말이다.

5. 주류 경제학의 거짓말을 찾아낸 사람들은 무엇을 바꾸었나요?

노동자들의 혁명	노동자는 경영학 기술자가 설치한 장치의 결함을 찾아내어 자본가가 마음대로 ()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특히 ()와 ()가 ()을 통해서 ()을 흥정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이를 우리는 ()이라고 한다.
이유	노동자가 일하는 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조직한 단체로 □□□□이라 한다.

6. 자본가가 자본을 대물림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함은 무엇이었나요?

노동자들의 혁명	자본 축적의 핵심은 노동자에게서 빼앗은 부를 자본가가 자본으로 전환하여 그것으로 다시 노동자를 더 많이 고용하는 것이다. 이는 □□□□을 늘리거나 줄이는 방식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생물학적 한계와 국제적인 규제로 늘리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자본가는 □□□□을 줄이고 기계의 사용을 늘린다. 그 결과 실업자가 늘어나고 자본가는 시장에 노동력이 풍부해져서 훨씬 좋은 조건으로 더 싼 가격에 노동력을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곧 노동자의 수를 줄이는 것이므로 자본가의 몫인 노동자의 □□□□이 줄어들게 되어 자신의 부의 원천을 줄여 나가는 셈이 된다. 결국 노동자의 총 □□□□이 감소하여 노동자와 자본가가 함께 나누어 가져야 할 부의 전체 크기도 줄어든다.
이유	자본가들은 전체 부의 크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본가들끼리 □□한다. 그 결과는 오직 승자와 패자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참된 장애물은 □□이다.

7. '자본주의는 자본가를 위해 존재한다'는 말을 마르크스 관점에서 비판해 봅시다.

자본주의는 자본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_____
_____ 때문이다.

3. 자본주의 끝을 암시하는 역사적 사건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 주나요?

<p>자본주의의 끝</p>	<p>1929년 뉴욕 증권 거래소 사건 요약하기:</p> <p>2008년 미국 주식 시장 사건 요약하기:</p>
<p>공황이 말하는 진실</p>	<p>공황의 의미:</p> <p>공황이 일어나는 원인:</p>

4.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결국은 끝을 향해 간다고 진단합니다. 자본주의 구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결함 때문이지요. 그래서 노동자들은 그 결함 때문에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 혁명은 실패했습니다. 그 원인을 마르크스는 대안이 없는 혁명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 할까요?

<p>자유의 나라</p>	<p>자유의 나라는 공핍과 자본가가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노동자에게 노동을 시키는 □□ □□이 멈출 때 비로소 시작된다. 즉 자본가는 사라지고 노동자가 자본을 □□□으로 소유한다. 누구나 노동자가 되어 일한 만큼 □이 돌아가는 나라이다.</p>
<p>공평한 분배 그리고 진정한 인간의 영역</p>	<p>1. 공평한 분배 방법: ① ②</p> <p>2. 사회적 소비의 의미와 그 종류:</p> <p>3. 여가가 발생하기 위한 조건:</p>

5. 마르크스가 제시하는 '자유'의 나라'가 대한민국에서 실현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주장을 밝혀 봅시다.

<p>주장</p>	<p>현재 대한민국은 미래에 자유의 나라가 될 수 (있다. / 없다.)</p>
<p>공황이 말하는 진실</p>	<p>1.</p> <p>2.</p> <p>3.</p>

6.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에서 '자유'의 나라'로 옮겨 가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다음을 채워 봅시다.

<p>자본주의에서 자유의 나라로 옮겨 타기</p>	<p>사회는 생물이 성장해 나가는 방식처럼 변화한다. 우리는 이를 □□□ 이라고 말한다. 변화는 우리의 과거 속에서 싹 틔운 다음 그것이 점차 자라나야 드러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의 변화 가능성은 자본주의 속에 자본주의와 □□되는 요소로 숨겨져 있다. 그것은 곧□□인데 이는 상대를 자신과 동등하게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에 동의하고 합의하는 것을 전제로 경제 □□□□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사회적 형태로 자본가와 노동력을 □□해야 한다. □□은 사회적 성격이 되고 그 단위는 사회적 단위여야 한다. 소비 역시 점차 □□□되어야 한다. □□□□과 노동자 □□이 잘 조직된 나라일수록 자유의 나라에 옮겨 탈 수 있다.</p>
-----------------------------	--

● 글을 읽고 활동을 해 봅시다.

(가) 부를 만들어내는 노동 과정은 두 종류의 생산요소가 결합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인간의 노동력과 물적 요소(원료 도구 또는 설비 등)가 결합하는 것이지요. 수렵 사회에서 인간의 노동력이 결합하던 물적 요소는 사냥 도구와 사냥터, 그리고 그 사냥터에 살고 있는 들소나 매머드 같은 동물이었습니다. 농경 사회에서는 농기구와 토지, 그리고 그 토지에서 재배하던 농작물이었죠. 이런 물적 요소를 생산수단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의 생산 설비들이 옛날의 사냥터나 사냥 도구, 농사를 짓던 토지나 농구에 해당하지요. 즉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노동력과 생산수단이 결합하여 생산물이 만들어집니다.

(나) 그런데 노동력과 생산수단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부의 처분권은 생산수단이 누구 소유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토지가 마을의 공동 소유였을 때는 토지에서 나오는 생산물을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노동자들은 자기 회사의 물건을 함부로 나누거나 가질 수 없습니다. 모든 부의 처분권은 생산수단의 소유자가 독점하게 되어 있고, 노동자들은 노동력만 있을 뿐 사무실이나 공장 설비 같은 생산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것을 교환을 통해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수단은 돈을 주고 구입해야 합니다. 생산수단을 구입하는 돈을 '자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산수단을 가진 사람을 자본가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노동력의 매매는 노동력만 가진 사람과 자본을 가진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노동력을 가진 사람은 자본을 가지지 못해서 혼자 힘으로는 부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그 상태로는 먹고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노동력을 자본가에게 판매해야 합니다. 개미가 손해 보는 교환을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라) 개미가 불리한 교환을 감수하는 까닭은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베짚이가 가진 생산수단을 개미는 왜 갖지 못한 것일까요? 개미가 스스로 원해서 그렇게 된 것일까요? 아니면 하늘이 점지해 두었기 때문일까요? 이를테면 개미는 이마에 '개미'라는 낙인이 찍힌 채로 태어나고, 베짚이는 서양 속담처럼 입에 '은수저'(또는 '자본')를 물고 태어나는 것일까요? 요컨대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라 갈라지는 개미와 베짚이의 운명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요?

(마) 개미와 베짚이의 운명이 뒤바뀐 자본주의는 유럽에서 생산과 소비의 균형이 깨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로 교환이 등장하는 16세기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개미가 생산수단을 갖지 못하여 어쩔 수 없이 노동력을 판매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개미의 노동력 판매는 사실 노동력을 잠시 생산에 사용하도록 빌려주는 것이어서 자본주의에서 개미를 '임노동자'라 부릅니다. 자본가는 이 노동력을 구매하여 그것을 생산에 이용합니다. 그리고 자본가는 구매할 때 지불한 가치보다 더 큰 가치를 만들어 내게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개미와 베짚이의 관계는 고정되어 갑니다. _76~86쪽 내용 정리

1. <보기>의 조건으로 질문을 만들어 보고, 친구들과 답을 찾아봅시다.

〈 보기 〉

- 단순 정보, 정보 간 관계 등 텍스트 내에 존재하는 정보를 확인하는 질문
- 독자들이 텍스트에서 저자가 말한 것을 기억하거나 찾아 답할 수 있는 질문
- 기억에 의존하여 답할 수 있는 질문

1) [개인 활동] 질문을 2개씩 만들어 봅시다.

단락	질문
〈예〉 (가)	부를 만들어내는 노동 과정 2개는 무엇입니까?

2) [모둠(3~명) 활동] 모둠 안에서 돌아가며 구성원들의 질문에 답을 찾아봅시다.

단락	질문

선생님께 1번 유형의 질문은 '사실적 이해'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텍스트를 정확히 읽고 내용을 정리하는 역량을 기르는 데 집중합니다. 모둠을 편성하고 질문을 만들 때, 개인 활동에서 만든 질문을 모둠 활동에서 문답 형식으로 함께 답을 찾아가도록 지도합니다.

2. <보기>의 조건으로 질문을 만들어 보고, 친구들과 답을 찾아봅시다.

< 보기 >

- 텍스트 내에 존재하지 않지만 읽기 활동 후 내용을 토대로 추리할 수 있는 질문
- 독자에 따라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한 가지 이상을 답할 수 있는 질문
- 작가의 의도와 숨은 논리 등을 찾아내 자신의 생각을 중심으로 답할 수 있는 질문

1) [개인 활동] 질문을 1개씩 만들어 봅시다.

단락	질문
<예> (가)	노동력과 생산수단의 결합 상태는 왜 깨지게 된 것일까요?

2) [모둠(3~4명) 활동] 돌아가며 구성원들의 질문에 답을 찾아봅시다.

단락	질문

선생님께 2번 질문은 '추리적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질문이며 활동 방법은 1번과 같습니다.

3. <보기>의 조건으로 질문을 만들어 보고, 친구들과 답을 찾아봅시다.

〈 보기 〉

- 텍스트 내용에 대한 평가나 비판을 제시하도록 하는 질문
-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거나 자신의 삶과 연계할 수 있는 답을 요구하는 질문
- 독자가 가진 가치나 경험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질문

1) 개인 활동으로 질문을 1개씩 만들어 봅시다.

단락	질문
〈예〉 (가)	우리 주변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자본가에게 판매하여 먹고사는 사례는 무엇이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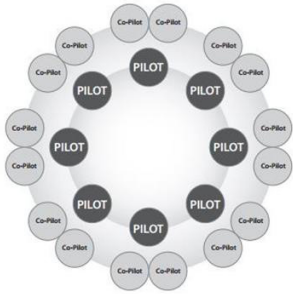
2) 모둠(3~4명) 활동으로 돌아가며 구성원들의 질문에 답을 찾아봅시다.

단락	질문

선생님께 3번 질문은 '비판적 · 평가적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질문이며 활동 방법은 1번과 같습니다.

[소크라틱세미나 활동 방법 설명]

1. 소크라틱세미나 배치



- ① 3인으로 작은 모둠을 형성함. (3인을 기본으로 하며 전체 인원
원에 따라 일부 최소 모둠을 2인 또는 4인으로 편성할 수 있음.)
- ② 3인을 왼쪽 그림처럼 동그라미 형태로 안쪽 원에 1명, 바깥
쪽 원에 2명 배치함. 모둠별 바깥쪽 인원은 안쪽 원 인원의 두
배가 됨. 안쪽 원이 학습 발언자이긴 하지만 일단 처음에는 누
구든 관계없이 그림처럼 배치하여 활동을 시작함. 모둠 내에서
바깥쪽 원 구성원은 언제든지 안쪽 구성원과 교대가 가능함.

2. 소크라틱세미나 활동 순서 및 활동 내용

① 기본 전제: 학생 활동 중심 모형으로 학생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질문'에 대한 동료 학생들의 '설명'을
들으며 학습함.

② 활동 순서 및 내용

개인 활동
(6차시)

- 텍스트를 읽으며 궁금한 부분에 대한 질문을 만들.
- 질문의 유형과 방향을 정해 질문할 수 있음.

모둠활동

- 3인 모둠이 모여 각자 만든 질문을 제시하고 모둠 안의 다른 구성
원이 설명함.
- 각자 중점 질문을 중심으로 진행함.
- 활동 뒷부분에 해결한 질문과 해결할 질문을 정리하고 모둠 대표
질문과 안쪽 원에 먼저 들어갈 구성원을 선정함.

세미나

- 안쪽 원 사람들이 교사의 개입 없이 모둠의 질문을 제시하고 다른
안쪽 원 구성원이 자신의 생각을 제시함.
- 발언은 안쪽 원 사람들만 하며, 바깥쪽 원 사람은 세미나 내용을 경
청하고 메모하다가 질문이나 답변을 하고자 할 경우 자기 모둠원과 교
대하여 안쪽 원으로 들어가 활동함.
- 모든 구성원이 안쪽 원에 들어가 한 번 이상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되 강요는 하지 않음.

1. 글을 읽고 소크라틱세미나 활동을 해 봅시다.

자본의 해답은 자유의 나라

(가) 그러면 『자본』이 목표로 삼은 대안적 경제 구조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앞에서 개미(노동자)를 모두 베짖이(자본가)로 만드는 방법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많은 개미들이 목을 매고 기대하는 달콤한 대박의 꿈도 결국 신기루일 뿐이라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실제로 개미가 개미라는 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개미는 개미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즉 개미가 노동하지 않고 부를 얻는 방법은 없습니다.

(나) 그렇다면 개미는 자신의 노동을 통해서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얘기를 시작할 때 보았듯이 개미의 문제는 노동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점과 이런 노동에도 불구하고 그 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과도한 노동과 절망적인 가난이 바로 개미들이 버스에서 내리고자 하는(혁명을 일으킨) 이유였던 것입니다.

(다) 마르크스는 개미의 노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대안적 경제 구조라고 말합니다. 개미의 노동이 어떻게 된다는 것일까요?

(라) 자유의 나라는 공평과 외적인 합목적성(베짖이가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개미에게 노동을 시킨다는 뜻입니다. — 지은이) 때문에 강제로 수행되는 노동이 멈출 때 비로소 시작된다. (『자본』 3권, 1095쪽)

(마) 개미의 노동에서 강제성을 없애는 것, 그것이 바로 대안적 경제 구조의 출발점입니다. 여기에서 강제를 벗어났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자유’가 흔히 ‘노동 해방’이라고 하는 말의 참뜻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자본』이 말하는 노동 해방은 노동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끔 이런 터무니없는 오해를 하는 분들도 있 더군요) 타인이 강제로 시키는 노동을 그만둔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때의 타인은 바로 베짖이입니다.

(바) 따라서 이 말은 곧 베짖이가 사라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베짖이도 원래 사람입니다. 그도 먹고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베짖이는 자신이 노동하지 않고 개미에게 강제된 노동으로 먹고삽니다. 노동만이 먹고살 수 있는 부이니까요. 그런데 모든 개미가 강제로 하던 노동을 멈추면 베짖이는 먹고살 수 없게 됩니다. 그도 스스로 노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짖이도 이제 개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 베짖이를 개미로 만드는 방법은 베짖이를 타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개미가 베짖이를 위한 노동을 멈추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개미가 베짖이를 위한 강제 노동을 멈추게 된다는 것은 베짖이가 더는 생산수단을 갖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아) 그럼 베짖이가 없는 사회에서 생산수단은 모두 개미가 공평하게 소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모든 생산수단을 특정 개미가 아니라 사회가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사회적 소유’가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의 자본주의에서도 물, 전기, 철도, 항만 등 사회 간접자본 등이 사회적으로 소유되는 경우가 있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192~195쪽 내용 정리

1) [개인 활동] 텍스트를 읽고 질문을 만들어 봅시다.

텍스트 내에 존재하는 정보를 확인하는 질문 (사실적 질문)	
추리하여 답변할 수 있는 질문 (추론적 질문)	
내용에 대한 평가나 비판을 제시하도록 하는 질문 (비판적 질문)	

2) [모둠 활동] 개인 활동에서 만든 질문을 이용하여 모둠 활동을 해 봅시다.

질문	토의 결과

3) [세미나 활동] 모둠 활동을 바탕으로 세미나 활동을 해 봅시다.

질문	토의 결과

2. 글을 읽고 소크라틱세미나 활동을 해 봅시다.

(가) 자본주의는 과연 민주적인 경제 구조일까요? 많은 것이 교환가치 또는 가격에 따라 등가 교환이 이루어 집니다. 그런데 자본주의에서 이루어지는 교환 가운데 노동력과 관련된 개미와 베짖이의 교환에서만은 등가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 개미의 노동은 베짖이에게 이전됩니다. 개미는 임금을 받고 그보다 더 큰 노동을 베짖이에게 넘깁니다. 개미가 이런 불공평한 교환을 하는 까닭은 '어쩔 수 없어서'입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원리와 일치하는 것 일까요?

(다) 개미와 베짖이가 서로 상대방을 동등한 인간으로 인정하고 교환에 합의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개미 의 노동은 베짖이에 의해 강제된 것이지 개미의 자발적인 동의나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 것은 민주 주의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자본주의가 출발 할 때의 원리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라) 자본주의 체제의 (...) 발전 (...) 과정에서 생기는 모든 이익을 가로 채 독점하는 대자본가 (...). 그런 데 자본 독점은 자신과 함께 (...) 개화한 이 생산 양식의 질곡으로 작용하게 된다. (『자본』 1권, 1022쪽)

(마) 자본주의는 교환에서 시작했고, 교환은 민주주의를 기초로 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미 와 베짖이의 교환은 이 민주주의를 배반하고 있습니다. 즉 자본주의 내부에 이미 그 떡잎이 담겨 있지만 스 스로 배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인 것입니다. 자본주의를 변화시킬 지렛대는 민주주의이며, 마르크 스의 『자본』이 상품에서 출발하면서 교환을 논의의 기점으로 삼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바) 현재의 위태로운 버스에서 안전한 새 버스로 갈아타는 방법은 민주주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민주주의는 어떻게 개미들을 새로운 버스로 옮겨 줄까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소수가 독점하고 있는 것 을 다수가 나누어 갖는 것입니다. 사실 자본주의와 함께 출발한 프랑스 대혁명은 극소수 귀족들이 독점하던 정치적 권리를 일반 국민들이 나누어 가진 사건입니다. '정치적 민주화'였던 것입니다.

(사) 지금 우리가 문제로 삼는 민주주의는 부의 독점과 관련된 '경제적 민주주의'입니다. 정치적 민주주의는 혁명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경제적 민주주의도 혁명을 통해서 달성되는 것일까요?

(아) 『자본』이 알려 주는 방법은 그것이 아닙니다. 마르크스는 '사회 운동의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자본 주의 속에서 발견한 자본주의를 바꿀 과학적 지렛대는 민주주의의 법칙, 즉 교환입니다. 민주주의는 교환이 라는 사회 운동 법칙을 통해서 개미들을 새 버스로 옮겨 줍니다. 개미들이 베짖이와의 교환을 통해서 자본주 의를 새로운 경제 구조로, 즉 '자유'의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개미들은 개별적인 형태가 아니라 사회적 형태로 베짖이와 교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개미들은 사 회적 집단을 이를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이나 노동 정당이 만들어진 이유가 그것입니다. 개미들의 수가 베짖이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개미의 사회적 조직은 생산과 소비의 사회화를 교섭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 습니다. 217~223쪽 내용 정리

1) [개인 활동] 텍스트를 읽고, 다음 조건에 맞게 질문을 만들어 봅시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해하지 못한 것	
좋거나 싫은 것,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것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	

2) [모둠 활동] 개인 활동에서 만든 질문을 이용하여 모둠활동을 해 봅시다.

질문	토의 결과

3) [세미나 활동] 모둠 활동을 토대로 세미나 활동을 해 봅시다.

질문	토의 결과

〈조건〉에 따라 『마르크스의 자본, 판도라의 상자를 열다』의 내용을 요약하는 글을 써 봅시다.

〈 보기 〉

- 마르크스가 제시한 1848년에 혁명이 일어난 원인과 그 실패 원인을 밝힐 것
- 마르크스가 분석한 현대 사회 경제 구조의 문제점과 원인을 밝힐 것
- 마르크스가 제안한 경제 민주주의의 실현 방안을 밝힐 것
- 띄어쓰기 포함 800자 내외로 작성할 것

선생님께 이 활동은 『마르크스의 자본, 판도라의 상자를 열다』 전체 내용을 요약하는 글쓰기입니다. 학생이 사실적 내용을 이해하고 표현하게 합니다. 학습 수준에 따라 글쓰기가 아니라 모둠을 구성하여 각 단원별로 내용을 요약하는 활동으로 전개해도 좋습니다.

(가), (나)를 참고하여 신문 칼럼의 형식을 알아보고, 〈조건〉에 따라 신문 칼럼을 작성해 봅시다.

(가) 신문 칼럼은 신문에 어떤 주제에 관한 분석 내용을 공유하거나 작성자의 의견을 표현하는 공간이다. 신문 기사가 객관적 사실을 기록하는 글임에 비해 칼럼에는 근거를 제시하며 작성자의 의견을 드러낸다. 칼럼의 주제는 주로 독자의 현재 상황과 관련된 사건으로 선정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주제를 드러내는 제목을 제시하고 자신을 ‘필자’ 또는 ‘나’, ‘저’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나) [홍○○칼럼] 다시 희망버스를!

김○○ 쌍용차 노조위원장이 회사가 2017년 상반기까지 약속했던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20여 일 넘게 단식하고, ○○○노동자들과 ○○택시 노동자가 노사 합의 사항을 지키라고 130일, 200일 동안 고공농성을 벌여도 고용노동부 장관이나 노사정위원장의 방문은 기대할 수 없는 게 이른바 ‘노동존중사회’의 실상이다. 이 봄을 따뜻하게 보내는 ‘촛불혁명’의 수혜자라면 이 봄이 오히려 더 춥고 잔인하게 느껴질 이들에게 눈길이라도 보내는 게 인지상정일 텐데 무감한 것이다.

그리하여 다시금 ‘희망버스를 타자!’고 호소하는 글을 쓰게 되었다. 택시노동자 김○○씨가 ○○시청 앞 20m 높이 조명탑에 오른 지 3월 22일로 꼭 200일이 되었다. 나 또한 장기 고공농성에 무감해진 자신을 발견하고 흠칫 놀랐다. ‘200일’이라고 별생각 없이 썼다가 잠시 돌아보았다. 그에게 허용된 공간이 가로 180cm×세로 70cm이다. 그 공간을 6개월 넘는 동안 벗어나지 않은 것이다. 그는 ○○시청과 택시사업주, 노조가 합의한 전액관리제를 ○○시청이 이행하지 않자, 지난해 9월 4일부터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택시노동이 고된 직업이라는 것은 해보지 않은 사람도 알 수 있다. 회사(법인) 택시는 프랑스 파리의 서울이든 전주든 ‘노골적인 수탈구조’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지만, 사업주와 노동자 사이의 배분 비율은 노사 간 역학 관계에 의해 규정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 북유럽의 택시노동자에 비해 열악한 처지에 있는 파리의 택시노동자이지만 한국의 택시노동자에 비하면 그야말로 양반이다. 만약 프랑스 택시노동자들에게 한국의 택시노동자와 같은 조건으로 일하라고 한다면 집단으로 택시를 불태우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국가주의나 질서 이데올로기에 갇혀 있지 않고 나름 노동자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구성원 대부분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육체적 품이든 정신적 품이든 품을 팔아 생존하는 노동자인데도 노동자 의식을 갖기는커녕 노동자로서의 ‘자기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돈 없는 사람은 사람 대접받기 어려운 한국 사회에서 법인택시 노동자는 문자 그대로 ‘벌거벗은 생명’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이들에게 ‘택시노동자가 매일 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입금하고, 회사는 택시노동자에게 월급을 주는 전액관리제’는 최소한의 생존조건이다. 그런데 ○○당이 장악하고 있는 ○○시청은 노사 간 균형자 역할을 하는 대신에 지역 토호들이 장악하고 있는 사업주 편을 일방적으로 들어주고 있다.

존재를 이반한 의식들이 만연한 사회는 운유할 수 없고 거칠다. 소통과 설득, 타협과 양보는 설 자리가 없고 왜곡

된 힘의 관계만 남는다. 1997년 살인적인 사납금 제도가 불법화되었지만 전국의 법인택시 대부분은 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변경한 불법적 사납금제를 고수하고 있고 지자체들은 이를 묵인하고 있다. 심지어 하루 10시간 이상 일해야 가능한 수입금을 사납금 또는 기준금으로 납부하고 소정 근로시간을 축소 적용해 하루 4시간의 최저임금을 받는 사례까지 있다고 한다. 이렇게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운행되는 택시이니 사고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법인택시 사고율이 전국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율의 45.5%, 사망사고율 1위를 차지한다고 한다.

○○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김○○씨의 고공농성과 동시에 전액관리제와 최저임금제를 무력화하는 고용노동부 행정지침의 폐기를 위해 ○○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천막농성도 벌이고 있다. 김씨를 외롭게 두지 않기 위해, 택시노동자들의 싸움에 연대하기 위해 서울 대한문에서 오전 10시에 출발하는 '3·31 뚝뚝뺑뺑 택시 희망버스'를 기획하게 된 것이다.

다시는 희망버스를 말해야 하는 날이 오지 않으리라 기대했다. 지난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일정의 하나로 인천 공항을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역설하고 최저임금이 꽤 높은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적폐청산 이상으로 노동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가 컸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나만의 일일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반대에 부딪히자 곧 수세적으로 바뀌는 게 감지되었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들어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할 세력은 자영업자들보다 자영업자들을 수탈하는 건물주들과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세력이었다. 세계 최고를 차지하는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5년 안에 70%가 망한다는 통계와 함께 그 대부분이 창업한 게 아니라 일자리가 없거나 일자리에서 쫓겨난 사람들이라는 점을 드러낸다.

그런데 자영업자들조차 노동자 임금을 상수, 월세를 변수로 인식하지 않고, 월세를 상수, 노동자 임금을 변수로 인식한다. 임금인상에 반대하기보다 토지 공개념과 보유세 강화를 요구하는 등 발본적으로 접근해야 마땅한데 그렇지 못한 것이다. 이른바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는 질적으로 더 열악해지고 양적으로 더 줄어들면서 부의 쏠림 현상,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청년세대는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세대의 부의 격차를 만회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자영업자들에게도, 장래를 설계하기 어려운 청년세대들에게도 높은 월세와 집값은 폭력 그 자체이고 헬조선의 기본 골조물이다.

희망버스는 희망을 신고 달려야 한다. '홀로서기' 세상이지만 돈도 없고 권력도 없는 이들에겐 머릿수뿐, 3월 31일, 허공에 매달린 택시노동자와 한 사람이라도 더 희망의 목소리를 나눌 수 있기 바란다. _2018. 3.

〈 보기 〉

- 7~8차시의 소크라틱세미나에서 마르크스의 의견에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것 또는 중요하다고 생각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이 뚜렷이 드러나는 칼럼을 작성할 것
- 마르크스 입장에서 한국 사회의 구체적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해결 대안을 제안할 것
- 제목을 제시할 것
- 피어쓰기 포함 800자 내외로 작성할 것